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대한

풍자적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정 찬 우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대한

풍자적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정 찬 우

인 준 서

정찬우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으로부터 부조리한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80년대 민중미술과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조망해 보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고된 삶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서의 음주행위의 산물인 소주병과 다른 사물들을 결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풍자와 은유적 성격을 가진 작품이 가진 조형적 표현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은 먹이사슬과 같이 존재하는 도시 생태계 속에서 일분일초를 다투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욕망과 탈진, 중독, 우울증 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빠르게 변하는 삶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 가정과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과 본인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경험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표현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 작품의 내용이나 개성 있는 작품의 표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작품에서 노동자와 예술가의 의미를 통한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에서는 예술가이자 노동자로서 바라본 사회모습과,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의 해소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 2장에서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상블라주 기법의 활용과 소주병의
은유적, 풍자적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개별의 작품 분석을 하였다.

제Ⅲ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부조리한 사회현상을 풍자한 조형성을 정리하고
앞으로 본인의 작업진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작품형성배경	
1) 예술가이자 노동자로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모습	2
2) 노동자들의 사회구조와 현실	5
2. 작품표현방법	
1) 아상블라주 기법의 활용	8
2) 소주병의 은유적, 풍자적 의미	9
3. 작품분석	11
III. 결론	26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대가리박아	11
【작품 2】 고개숙인남자	14
【작품 3】 녹색도시	16
【작품 4】 먹고 살기위한 총	18
【작품 5】 국민의 마음과 우주대폭발 빅뱅은 비례하는가?	21
【작품 6】 감옥	24

I. 서론

본인은 현 사회의 구성 안에서 예술가인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직업과 계급은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는 현실을 이상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작품을 통해 사회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때로는 수동적으로 살아가며 현실을 그대로 수긍하며 살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예술가이자 노동자로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애환, 고통 등을 부조리한 사회비판과 연관시켜 풍자하는 조형적 언어로 표현해 보았다. 예술가의 성향에 따라 현실의 모습은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면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본인은 후자와 같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의 부조리한 면들을 조형언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예술가이기 이전에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들을 느꼈다.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면서 쌓인 소주병으로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닌 많은 노동자들은 술자리에서 개개인이 생각하는 정치, 경제 등의 부조리한 사회구조들을 비판하고 논쟁하며 삶의 푸념을 늘어놓는다.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풍자와 은유로 표현했다. TV,신문 또는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패러디나 희화화 같은 표현을 참고해서 다양한 일상적 물건들을 이용하여 풍자와 은유를 통해 작품화 했다.

1980년대의 민중미술이 민주화를 위한 독재정치에 맞선 저항의 미술이었다면, 본인의 작품은 신경제자유주의의 자본의 불균형으로 인해 벌어진 계급간의 양극화를 비롯한 깊어진 현대사회 문제를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윤만을 따지는 대기업들은 독과점 행태로 인해 많은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더 고통스러워 지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이런 척박해진 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소주병으로 풍자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우리는 큰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하다. 예술행위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과 사회가 떨어질 수 없듯이 예술가와 사회현상과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본인 작품의 세계관이 형성 되는데 가장 넓은 범위에 근거하는 것은 인간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아래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 곧 노동자들의 고되고 힘든 삶의 배경에 있다.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에 관심이 많았다. 본인에게 예술 활동이란 곧 사회생활을 말하기도 하는데 예술가이자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느낀 애환, 고통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마는 감정이 아닌 모두가 공감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인식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들을 풍자와 은유로 재해석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1) 예술가이자 노동자로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모습

1980년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뚜렷하게 각인되었던 시기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후 군사정권은 80년대까지 철권정치를 유지시키고 있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민주화 운동은 군사정권의 탄압이 드세면 드셀수록 저항의 강도도 높아진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의 존립기반과 정당성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비판과 독재타도 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노동운동, 여성운동, 반미운동, 통일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형

대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마침내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쟁취하였다.¹⁾

80년대에 나타난 민중미술은 민족구성체로서 민중 주체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지향하려는 운동으로서 개인의 의식과 서구적 표현양식, 전문성이 소시민적 계급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미의식을 투영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 이 시기의 민중미술은 크게 두 형태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비판적 리얼리즘 미학에 근거한 미술로서 현대미술의 서구적 표현양식과 그 이면에 내재한 개인적 내면성, 자의식, 존재의식을 표현하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민족, 민중적 미술을 발굴, 계승하고 현대의 한국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표현양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²⁾

당시의 사회비판적 예술작업들에 비해서 요즘의 사회문제는 좀 더 세분화 되어있다. 국민 대 정부의 대립구도가 아닌 국민 대 국민의 대립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때가 2014년의 세월호 침몰 사고(世越號 沈沒 事故) 참사가 일어났을 때였다.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행태로 인해 일어난 참사에 대한 문제를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개탄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이 서로 분열되고 이념갈등의 문제로 확산되기까지 하였다.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의 여당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의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체계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려 하고있다.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 유지되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한국사회는 권력계층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약한 자에게만 법을 강요하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푼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18년 장기집권 시절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을 정책적으로 정경유착³⁾하여 초고속 성장이라는 신화

1) 구본주,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 80년대 이후 구상조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학위논문 (석사), 2003 . 2 p.4

2) 구본주,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 80년대 이후 구상조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학위논문 (석사), 2003 . 2 p.5

3)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결탁 하는 것. 같은 말 정경일치 (政經一致) - 네이버 국어사전

를 이루었지만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우리의 민족성과 월남특수가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인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한 사실이다. 대기업과의 정경유착으로 사회는 부정 부패가 점점 더 만연해졌고, 개개인은 무력감이 깊어진다. 관치경제⁴⁾로 인해 거대한 독점 재벌 체계를 구축했고 이들과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왜곡된 경제구조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 되었다. 방법론을 무시하고 특정 소수 기업에게 밀어주기식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대기업의 비도덕적이고 공정 거래를 지키지 않는 의식이 뿌리 깊은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다.

만일 80년대 3저 호황⁵⁾ 이후 재벌 대기업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며 자립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정부가 60~70년대의 산업정책에 버금갈 정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R&D 투자와 정책금융을 통해 부품소재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재벌 중소기업 간의 양생은 완화 되었을 것이다.

이 당시 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노동력만큼은 넘치는 나라였다. 결국 이런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업병까지 가지면서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있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노동자다. 본인 또한 그런 힘없는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을 꿈꾸기 위해서 힘든 현실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있다.

본인이 바라 본 현대사회는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등한 경제 분배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와 대

4) 관치경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부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장의 효율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네이버 지식 <http://kin.naver.com/qna/detal.nhn>

5) 저달라·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현상>에 의해 1986~88년에 걸쳐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것을 일컫는 말.

-NAVER 지식백과,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0571&cid=42958&categoryId=42958>

기업간의 불합리한 경제 불균형 속에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요소들이 사회에 응축되어 녹아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와 부의 분배체제 또는 사회보장, 세금의 올바른 사용 등을 통해서 경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회적 부조리로 인한 문제들을 왜 힘없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안아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런 불합리한 경제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노동자들은 매일 술을 마시며 힘겹게 삶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를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꼈다. 본인은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아상블라주방법을 활용하여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노동자인 본인의 생각을 제시 하였다.

2) 노동자들의 사회구조와 현실

2015년 11월 13일은 청년 전태일⁶⁾이 사망한 45주기였다. 23살의 꽃다운 청년은 온 몸을 불사르며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소리쳤고, 아직도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간당 5,580원이고 2016년부터 6,0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5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과연 이를 수 있는 꿈이란 게 무엇일까?

노동자들은 현실적인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 자주 술을 마신다. 현대사회에 서는 언제나 급박한 현실, 우스꽝스런 하루일과, 그것은 삶의 시간을 자신이 진정으로 꿈꾸고 희망하는 방식으로 쓰기보다는 지배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맞추어 살아야 하는 시간이 돈이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모두들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저축하기 위해 바

6)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봉제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NAVER 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6959&cid=40942&categoryId=33385>

쁘게 날뻐수록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지고 스트레스만 증만해졌다. 이런 모습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시간에 대해 스스로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 즉 시간주권⁷⁾을 상실한 상태다. 시간주권을 상실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경영자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간주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외형적 경제위기가 이전부터 존재해 온 삶의 위기의 바탕을 이루게 하였다. ⁸⁾

술자리는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는 이유의 마지막 종착역 같은 느낌의 축제 또는 심포지엄⁹⁾ 일지도 모른다. 힘들고 고됨을 달래기 위한 위안 때문에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 이겨낼 수 있는 무언의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때로는 그 무언의 에너지가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 비즈니스맨들의 직장에서의 피곤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유일한 좋은 말없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힘든 일상을 견디게 해주며, 취중진담(醉中眞談)하며 함께 마실 수 있는 직장동료가 있어, 우리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의 느끼는 딱딱하고 힘든 생활고와 바쁜 일상에서 유일한 위안이자 안식처임이 분명 틀림없다. 하지만 적당한 음주는 몸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음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이유로 술을 지나친 음주를 한다면 알코올 중독(Alcohol Dependence)¹⁰⁾, 또는 알코올 의

7) 시간주권이 있는 삶이란 제도적으로는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자기계발의 기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에 걸맞게 일을 할 수 있으며 두루 비슷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 NAVER 지식백과 <http://kin.naver.com/qna/detal.nhn>

8) 이 시대 현대인들의 비극의 출발점은 아마도 시간 주권을 빼앗겼다는데 그 출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바로 '행복을 유보시키는 사회'라고 표현한다. 중고등학생때는 대학 갈 때까지, 대학생에는 취업할 때 까지, 취직하면 집살 때까지.... 아마도 행복을 유보하는 사회에서 행복해지는 순간은 바로 인생을 마감하며 눈을 감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 최진섭, 『좋은 아빠』, 2002, 겨울호, p.14, 15

9)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 - NAVER 지식백과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4185400>

10) 원인-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을 해서 알코올리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진단-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엄격한 초자아를 갖고 있거나, 자기 처벌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알코올리즘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발달상 구강기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입으로 술을 마심으로써 좌절감을 해소한다고 알려져 있

존중(alcohol dependence)¹¹⁾에 걸릴 수 있다. 간경화나 암 같은 신체적인 병을 갖게 하기까지의 지나친 음주는, 흔히 생각하는 개인의 병이 아닌 가족의 병이며 가족에게 많은 상처나 고통을 준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사회 제도로 인해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쉽게 바뀌지 않는 일이다. 한편, 노동자들은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개인의 삶을 이어나가기에도 고통스럽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경제를 술자리에서나마 푸념 섞인 신세타령과 불만을 토로(吐露)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사회비판적 시각을 술자리에서 쏟아진다. 동료들의 이야기들 직접 듣고 삶에 대하여 토론하며 참고하여 틈틈이 작업에 대한 구상을 해왔다.

2. 작품표현방법

본인의 주변에는 소주병이 날로 쌓여갔고 조형도구로서 소주병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 이 녹색병인 소주병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고 싶었다. 노동자들이 바라 본 현대사회의 비판적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소주병의 형태를 왜곡 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하고 조합하여 입체작품 및 평면작품을 제작하였다. 특히 노동자로서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 부조리, 병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소주병, 철근, 발판, 밥통들을 소재로 선택했다. 특

습니다.

예후-간염, 지방간, 간경변 등 간 장애, 위염, 설사, 위궤양 등 위장관계장애, 췌장염, 당뇨, 심근병증, 혈소판 감소, 빈혈, 근병증, 성기능 장애, 수태 능력장애 등이 신체적 합병증으로 나타난다.- 세브란스병원

11) 절주·단주를 할 수 없는 상태, 폭음으로 최소한 이틀 이상 취해 있는 경우, 음주로 악화되는 줄 아는 심각한 신체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 세브란스병원

히 소주병을 전체적인 소재로 하여 거대한 총, 폭발한 국회, 녹색 빌딩, 감옥 등을 왜곡 과장하여 풍자적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소주병을 전기 가마에 넣어서 유리에 열을 가하여 소주병을 구부리고, pt병을 이용하여 인체를 풍자해서 표현하였다. 아상블라주 기법을 이용해 소주병을 수집하고 쌓아서 소주병의 색깔인 녹색을 이용해 녹색도시 빌딩 숲을 만들고, 데페이즈망(dépaysement)¹²⁾ 기법을 이용해 총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소주병이 총알로 보이게 하여 거대한 총을 제작하고, 디지털기법을 이용하여 국회를 폭파시켰다. 그래서 국회를 폭파한 죄로 감옥을 만들어 소주병을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 작품에서 등장하는 소주병에 담긴 은유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제작했다.

1) 아상블라주 기법의 활용

아상블라주(assemblage)란 폐품이나 일용품을 비롯하여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을 말한다. 프랑스어로 집합 집적을 의미하며, 특히 조각 내지 3차원적 입체작품의 형태를 조형하는 미술상의 방법을 말한다. 콜라주가 평면적인 데 대하여 아상블라주는 3차원적이다. 1961년 뉴욕에서 열린 아상블라주전(展)의 기획자 W.사이츠는“아상블라주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물체의 집적이어야만 한다”고 정의하였다. 다다이즘 및 초현실주의,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네오다다이즘, 팝아트, 누보레알리즘 및 환경예술 등에서 이루어졌다. D.스페리(1930~), F.아르망(1928~2005) 등은 폐품을 소재로 예술화한다는 데서 더 나아가, 오히려‘잡동사니’ 폐품이 지닌 표현력을 끌어내려는 데 예술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업제품의 폐품을 주로 사용한 정크 아트(junk art)도 이에 속한다.

12) 추방하는 것'이란 뜻. 초현실주의에서 쓰이는 말로,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함.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9669&cid=42635&categoryId=42635>

본인은 단순히 음료수 병이나 캔 같은 폐품이나 물건들을 집적하는 방식의 아상블라주 기법과 입체적으로 제작한 형태에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소주병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소주병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연상한 이미지들을 드로잉 하고 쇠파이프, 평철, 철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소주병과 제작되어 진 조형물의 간의 새로운 결합을 하였다. 소주병 및 철근, 발판, 밥통 등의 다양한 일상적 물건들을 활용하여, 작가의 삶의 주변일상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고자 하였고, 일상의 물건들이 오브제¹³⁾로서 새로운 형식과 조합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는 의미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기존의 작가들의 작품들은 오래된 폐품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데 비하여, 본인의 작품은 오래된 폐품도 이용하였지만, 새 물건을 직접 구매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오래된 것과 새 물건과의 차이를 두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작품 3】**, **【작품 6】**에서 볼 수 있듯이, 용접을 한 부분이나 절단된 면을 다듬지 않고, 또는 도색을 하지 않은 마감처리는, 본인의 작업흔적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과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리하여, 각각의 재료들 자체의 성질 혹은 질감을 그대로 살렸다.

2) 소주병의 은유적, 풍자적 의미

본인의 작품 속에는 본인을 포함한 불안한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해소의 흔적들이 소주병으로 나타난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끝내고 술집에서 술 한 잔을 마시면서 나아가며 겪는 인생의 고통이나 정치, 경제에 대한 저

13) 오브제 (Object)의 어원은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m)’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어의 오브젝트 (object)이고 프랑스어는 오브제(objet)이며, 일반적으로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브제의 일반적 사전적 의미로는 “보여 지거나 만져지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주체(subject)가 인지할 수 있는 물질적 또는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홍구,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2001, p.186

마다의 생각을, 때로는 마치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전쟁을 하듯, 의견충돌하며 살벌한 토론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마시고 쌓인 소주병들은 소주를 담기 위한 사물이라는 외적인 의미는 배제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인생의 쓴맛과 같은 애환이 담겨 응축되어 있는 사물이라는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소주병과 주변의 상황들을 상징화 시켜 비판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본인의 작품들은 노동자들의 심리적인 지형을 그려내고 있다. 【작품 1】에서는 상류 계층의 부조리함을 벌 받는 포즈를 취하고, 【작품 2】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고개 숙인 남자로서, 【작품 3】 소주병의 투명한 색깔을 이용해 녹색 도시로, 【작품 4】에서는 총알로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한국사회의 암울한 시대상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작품 4】는 총의 이미지를 조형화하여 총을 직접 만들고, 그 탄창 속에 총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소주병이 대신하여 배치되어 데페이즈망의 성격을 보인다.

【작품 1】은 권력계층의 부조리한 사람들을 풍자한 작업이다. 【작품 1】의 소주병은 인체의 몸통이 되어 찌그러져 있고, 다리부분은 철사를 활용하여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는데 이는 얇고 연약한 다리로 비틀비틀 엎드려뻗쳐 있는 상황의 인체를 형상화 한 것으로서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물리적 복수를 실현시키는 풍자의 성격을 내비치게 된다.

풍자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희화화시킴으로써 위화감을 상쇄하고 모순을 밝혀내며 그로 인해 그 대상이 진정으로 갖춰야 할 모습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풍자는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다.¹⁴⁾ 특히 현실에 대한 불만들을 비판하는 억압이 강해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고 나타나곤 한다. 이처럼 본인의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비판적 사고들이 풍자에 빚대어 조형적으로 표현되었다.

14) 노승표, 『풍자 이미지의 조형적 표현 방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학위논문(석사), 2015 . 8 p.7

3. 작품분석



【작품 1】 대가리박아

【작품 1】 대가리박아

연도 : 2014

크기 : 30 X 21 X 20 (cm)

재료 : 철사, 소주 페트병

제작방법

1. 페트병에 있는 공기를 빼낸 후 120도 정도 구부려 뚜껑을 닫는다.
2. 철사를 2겹으로 꼬아 준 뒤, 페트병 밑 부분에 고정한다.
3. 인체의 상체가 되는 페트병과 하체가 되는 철사의 비례를 확인하여 모양을 잡고 동세를 만들어 고정시킨다.

작품설명

노동자들의 인생의 애환을 술을 마시며 사회를 비판하는 행위들을 형태로 풍자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의 제작 형태를 보면 인간의 상체 부위가 소주 페트병이 되고, 하체부위는 철사로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인체를 만들 때, 흠을 붙이기 이전에 두 개의 철사를 서로 꼬아서 뼈대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그때 꼬여진 철사의 구조가 본인의 눈에는 인간의 나약한 뼈대의 모습과 닮아 보였고, 살을 붙여서 외형적으로 완성하는 것 보다는 뼈대가 보이는 형태로 완성하는 것이 더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알코올중독으로 피골이 상접한 느낌이 잘 전해진다. 그리고 굳이 팔을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생략함으로써, 소주페트병의 오브제로 시선이 들어나 보여 주제를 강하게 보이게 해준다.

본인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 눈 앞에 있던 페트병을 손으로 즉흥적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철사를 찾아 페트병에 분리되지 않게 고정을 하고 다리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철사를 이중으로 겹쳐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두 개의 철사를 한올 한올 꼬았다. 그리고 형태를 잡기 위해 페트병의 뚜껑부분이 머리 부분이고

폐트병의 바람을 빼서 반으로 접어서 구부리면 사람인체의 몸통부분으로 보이고
철사부분을 다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릎 부분을 구부리고, 또 발목부분에 꺾이게
하면 동세가 나온다. 그리고 좀 더 힘들어 보이는 형태를 위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포즈를 너무 오래해서 마치 쓰러지기 일보직전 같은 연극적 요소가 들
어가 관람자에게 좀 더 감정을 어필 할 수 있고 극적인 효과를 전달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작품 2】 고개 숙인 남자

【작품 2】 고개 숙인 남자

연도 : 2014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소주병

제작방법

1. 소주병에 붙은 상표를 제거하고 비누로 깨끗이 세척한 후 말린다.
2. 소주병이 들어갈 정도의 둥근 전기 가마에 넣고서 열을 가한다.
3. 빨강계 온도(녹는점300-400도)가 올라가면 밖으로 꺼내 소주병의 끝부분을 집게로 잡고 구부린다.

작품설명

똑바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지친 노동자들의 모습을 형태적으로 풍자해 소주병이라는 오브제를 이용해 단순히 사람으로 풍자화해서 표현하였다. 소주의 유리병은 노동자의 나약한 내면의 모습과 닮아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무력감을 느끼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두 개의 병을 구부린 이유는 자아와 타자간의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이 느끼는 공통의 문제들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소주병의 윗부분이 가늘고 길게 늘어져 마치먹어도 목구멍이 좁아 배가 부르지 않는 아귀(餓鬼)¹⁵귀신처럼 만들었다.

15) 생전의 탐욕으로 인한 과보. 중생이 윤회하는 여섯 세계(六道: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천)중의 한 세계. 무엇을 먹더라도 곧 불덩이로 변해서 끊임없는 기갈에 시달리며 큰 배에 비하여 목구멍이 바늘만한 생김새라고 한다. -문화원형 용어사전



【작품 3】 녹색도시

【작품 3】 녹색도시

연도 : 2014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쇠, 소주병

제작방법

1. 사각파이프를 이용해 빌딩모양의 틀을 만든다.
2. 발판을 이용해 4개의 면을 붙인다.
3. 소주병을 넣고서 고정한 후 마감 처리한다.

작품설명

도시의 비즈니스맨들이 과도한 노동과 업무로 직장상사의 폭언과 폭행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술을 많이 마시는 모습을 풍자했다.

시골에서 살다가 온 본인은 도시의 빌딩 숲을 보며 인상 깊게 생각했고, 이 도심을 이루는 빌딩들을 형상화 하였다. 빌딩을 채우고 있는 것은 소주병으로 치환된 비즈니스맨들의 스트레스가 축적된 것이다. 각각의 빌딩은 서로 다른 크기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자본의 크기 차이를 표현하였다. 약육강식의 거친 도시에서의 삶을 표현하기위해 강철구조로 빌딩의 뼈대를 제작하였다. 조명을 비추었을 때 소주병의 색깔이 투명하게 밝게 초록빛을 낸다. 이는 도시생활에서 한줄기의 희망을 이야기 하고자 했다. 가난한 서민의 한 단면의 표현이기도 하다. 빌딩3개의 작품 사이로 관람자가 감상하며 걸어갔을 때, 거인이 되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걸어 다니는 느낌을 주고자 했고, 일상에서 크게만 보던 빌딩이 자신보다 작게 보일 때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한다.



【작품 4】 먹고살기 위한 총

【작품 4】 떡고살기 위한 총

연도 : 2014

크기 : 350 X 35 X 160 (cm)

재료 : 쇠, 소주병, 밥솥

제작방법

1. 밥솥 주위로 철판을 원형으로 레이저 가공한다.

그리고 소주병을 탄창에 넣고서 철근으로 고정한 후 중심축 부분에 배어링을 용접한후 100mm 사각파이프로 프레임을 만든다.

2. 두 개의 원형파이프 140mm 100mm를 2m 자른다. 손잡이 부분은 철판 3t를 이용하여 모양을 종이에 드로잉 한 후에 재단 한다. 철판발판을 이용하여 총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고, 입구가 좁은 전시장에 전시를 위해서 2개로 분리하여 전시장에 가서 조립한다. 그리고 총 입구 부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받침대를 제작한다.

3. 원형파이프를 이용하여 방아쇠를 만들고, 총의 가늌자를 볼트를 이용하여 만든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친 표면처리를 부드럽게 마무리를 한다.

작품설명

각박하고 일에 찌든 노동자들이 술을 마시고 서로 공격하는 분노를 총을 빗대어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실제보다 크게 제작했는데 이는 위협감과 일상에서 바라 봤을 때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탄창부분은 관객이 직접 돌려 볼 수 있는데 이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전식 권총 (revolver) 형식을 따랐다.

총의 전체 부분은 파이프와 철판을 잘라서 알곤 용접을 해서 직접 만들고 탄창부분에는 데페이즈망기법으로 소주병을 총알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밥

통을 함께 설치함으로서, 노동자들의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을 풍자해 현실을 비판 하고자 했다.

그리고 공이부분이 뒤로 많이 젖혀져 장전되어 있는 것은 언제라고 방아쇠를 당겨 총을 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전시장에 권총과 국회의사당의 작품을 같이 연출 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무게중심이 총구부분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 서있기 위해서 삼각받침대를 제작해서 기울여지지 않게 받쳐 제작했다. 총구가 사람의 눈높이에 겨냥하고 있어서 한층 공포감이 느껴지게 했다.



【작품 5】 국민의 마음과 우주대폭발 빅뱅은 비례하는가?

【작품 5】 국민의 마음과 우주대폭발 빅뱅은 비례하는가?

연도 : 2014

크기 : 106 X 56.7(cm)

재료 : Digital print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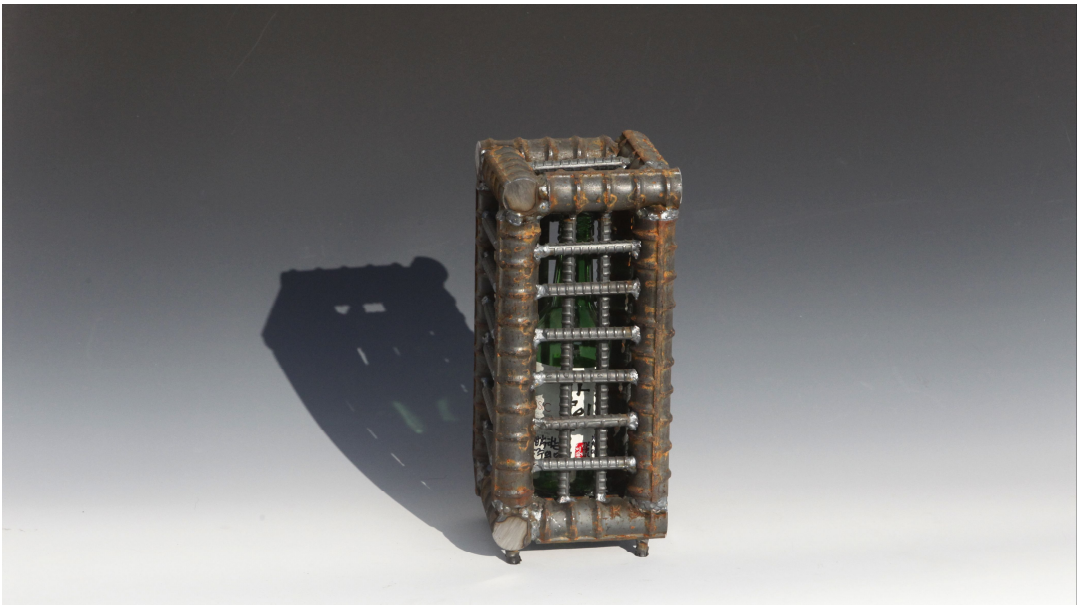
1. 본인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를 본인의 아이디어에 주력하여 기본 드로잉 한다.
2. 기본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합성, 드로잉, 보정 등 디지털 작업을 거친다.
3. 디지털 프린트하여 마감한다.

작품설명

이 작품은 서민들의 애환을 해결하는 것은 뒤로한 채, 대기업 밀어주기 식에만 집중하는 현 국회의원 및 정치가들의 부조리한 횡포를 보며 국회를 폭파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작품이다. 실제 국회의 사진이미지를 이용하여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풍자한 작품이다.

노동자들의 폭발하는 심정을 투영하여 국회의사당의 이미지에 미켈란젤로의 벽화 천지창조[Genesis, 天地創造]의 부분을 이용하여 컴퓨터 작업하여 합성하였다. 바티칸 성당의 돔 부분과 국회의 돔 형상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고, 천지창조의 흰 구름과 폭발하는 검은 연기가 닮아 있고, 신들이 창조하는 것과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회의사당이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국회의사당을 천지창조와 같이 합성함으로써 신들이 있는 신전과 같이 위상을 높여,

신이 인간을 창조하듯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같이 비유했다. 그렇게 동급으로 두고 '천지창조'의 화두가 되는 중심부를 국회의사당과 디지털기법으로 편집하여 예술적 감성과 국회의원의 이중적인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고자 했다. 국회의원들의 형태를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면서 참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풍자 해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작 하였다.



【작품 6】 감옥

【작품 6】 감옥

연도 : 2014

크기 : 13 X 13.5 X 30(cm)

재료 : 쇠, 소주병

제작방법

1. 굵은 철근과 작은 철근을 소주병의 61.5 X 21.5cm 크기에 맞게 자른다.
2. 감옥의 형태를 사각으로 하여 아르곤 용접한다.
3. 소주병을 넣고 작은 철근으로 고정된 후 실리콘으로 깨지지 않게 고정한다.

작품설명

감옥의 형상을 단순화 시켜 풍자 해 조형화한 작품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알코올중독자와 같이 매일 술에 찌든 노동자를 표현하였고, 답답한 회색 시멘트 도시의 감옥 같은 현실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수함으로 희귀를 갈망하는 염원 속에서 더욱 편안한 휴식과 안식을 주는 자연으로 되돌아가 병든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풍자해 조형화 한 작품이다.

소주병이 교도소 독방에 갇혀있는 감옥으로 표현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답답한 공간으로 표현했다. 술의 공간에서 중독되어 빠져 나올 수 없는 감옥이다. 작지만 강한 느낌을 위해 두꺼운 철근을 사용했고, 용접을 최대한 튼튼하게 밀도 있게 용접했다. 그리고 쇠창살의 느낌을 얇은 철근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인 재료를 철근으로 제작하여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조각가이자 노동자로서 개인의 모습으로부터 현 사회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부조리한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현대사회를 조망해 보았다. 노동자들의 고된 삶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서의 음주행위의 산물인 소주병이 인생의 쓴맛과 같은 애환이 담겨 응축되어 그들을 대변하는 오브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것이 본인의 의도에 따라 현실에 대한 불만들을 풍자하여 다른 사물들과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은유적 표현이 되었다.

또한 소주병이라는 상징적 오브제를 통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자각하여 주변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사회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했다. 소주병을 단순한 형태의 재현에서 벗어나 신화와 건축, 총, 국회 등에서 내포되어 나타나는 저항적 폭력적 사회성을 술이 가지는 의미나 현상의 속성을 풍자적 요소로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함에 따라 그것이 작품에서 가지는 조형언어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작품에 대한 미의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사회 부조리함을 통하여 소주병이 가지는 풍자적 언어의 변화와 은유적 언어로 변하는 조형성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사고의 전환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인의 작업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자와 연관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들을 잘 살펴봄으로서, 소주병을 이용하여 사회를 비판해서 풍자해야 할지 연구해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작업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향후 과제로 한다.

참 고 문 헌

《번역본》

- 로잘린드 크라우스, 윤난지 옮김, 『현대조각의 흐름』, 예경, 1997
-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홍성광 옮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을유문화사, 2015
- 스베냐 플라스펠러, 장혜경 옮김,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로도스, 2013
- 허버트 리드, 이희숙 옮김,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2001

《논문》

- 구분주,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 80년대 이후 구상조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3 . 2
- 노승표, 「풍자 이미지의 조형적 표현 방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학위논문(석사), 2015 . 8

《홈페이지 및 기타》

- 1)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2) 네이버 지식 <http://kin.naver.com/qna/detal.nhn>
- 3)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nhn>

ABSTRACT

A Study of Satirical Expression on the Irrational Social Phenomena

-On The Basis of my Work-

Jeong, Chan woo

Dept. of Sculpture

Graduated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has a critical view of an individual living as a worker on the general unjust social structure and takes a view of the popular arts and the imbalanced economic structure of Korean society in 1980s. The soju bottle, result of workers' drinking behavior as a way of solving stress gained from the fatigued life, and other things are combined. Based on this combination, the research tri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ve expression of the work that has the satirical and metaphorical nature to irrational society.

The researcher' work represents the workers satirically who live through the urban ecology existing with the food chain fighting at every moment and fiercely in desires, exhaustion, addiction and

depression. The life of workers in home and workplace to find the basic human happiness in life changing such fast was re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er's life story. This research groped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working and analyzed for the content of works or expression of individual works multilaterally.

Following is the composition of this research.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I, the method of research was stated briefly through the meaning of workers and artists in the researcher's works.

In chapter II, the main discourse is composed of 3 sections. Section 1 researched the look of society seen from artist and workers's standpoint and dissolution of workers' painful life. Section 2 described the use of assemblage technique in the work and the meaning of soju bottle's metaphorical and satirical meaning.

Section 3 analysed individual works.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e formative nature that satires irrational social phenomena was arranged and the direction of this paper was presented.